

문화유산발굴조사단 불교문화재연구소로

조계종 문화부 조직 재편

조계종 문화부가 행정조직·박물관·연구소를 갖춘 문화재 전문기관으로서의 기구를 완결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7월 23일 공포한 '성보박물관설립및운영에관한령'과 '재단법인불교문화재연구소설립및운영에관한령'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성보박물관의 관리가 강화되고,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은 '불교문화재연구소'로 확대·재편돼 문화재 발굴 전문기관으로 거듭난다.

조계종 문화부가 문화재 관련 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불교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성보박물관이 문화재 전시 및 보존·활용을,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조사발굴과 연구를 각각 맡게 되는 것이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전국의 사찰 성보박물관을 총괄하게 된다. 박물관은 관장과 학예·사무국을 중장, 연구원, 조사원 사무원 등의 전문 인력을 갖추고 성보의 전시·보존·활용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이번엔 공포된 '법제법시행령'에서는 비구와 비구니 법제별 가사 조수를 동일하게 했다. 이에 따라 명사 가사는 21조에서 25조로, 명덕은 19조에서 21조로, 현덕은 15조에서 19조로, 혜덕은 13조에서 15조로 각각 변경됐다.

남동우·여수형 기자

“국립공원 관련 법제도 개선해야”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환경운동연합 토론회 개최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된 지 6개월, 국립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은 실효되고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국립공원에 대한 인지도는 국립공원입장료를 징수할 때보다 낮아져 국립공원인지도 낮아지고 있다. 국립공원은 공황상태다. 여기에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를 둘러싸고 조계종과 시민환경단체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과 환경운동연합이 7월 26일 만해 NGO 교육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이병인 교수(부산대)는 “국립공원관련법은 자연공원법으로 일괄적으로 규정돼 국립공원의 가치와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따로 분리해 법제화하거나, 현재 공단을 공원관리청 등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거나



가야산 성역화 기원 대법회에서 스님들이 가야산 성역화를 주장하고 있다.

다 공원 보존을 위한 제반 사항들을 개선,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도 여러 법으로 중복 지정돼 상호간의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상충되는 경우도 많다”며 “공원 내 지역에 대한 중복규제를 한부서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내 사유지 문제와 관련 “사유지 중 집단시설지구나 생태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매입해 국유화해야 한다”며 “최

근 일어나고 있는 국민신탁운동과의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문화재관람료 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으로 △문화재관람료 매표소 위치 이동, 관람 서비스 강화 △용도지구에 역사문화보전지구 신설 △객관적인 기관에 의한 문화재 유지보수비용 책정, 정부지원방안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송병용씨(국립공원관리공단 기

획조정립)는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후 전년에 비해 탐방객이 50%, 불법무질서행위 단속실적은 70% 이상 증가했다”며 이에 따른 단기 대책과 중기 대책을 내놓았다.

해인사, 환경운동연합의 방문

이에 앞서 합천 해인사 주지 현승 스님 등 200여명은 시민환경단체들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거부 운동과 관련 7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을 항의방문했다.

항의 방문단은 시민환경단체들에 △국립공원 대책안 수립 △다중선동 집단행동 중지 △정부에 국립공원 보호 사찰 문화재 보호 대책안 수립 요구 등을 촉구했다.

한편 합천 해인사는 7월 22일 ‘가야산 성역화 기원 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부대중 2000여명은 해인사 산문입구 홍류문 앞에서 ‘국립공원 지정의 목적은 자연보호’임을 강조하고 문화재관람료를 반대하는 일부 단체에 대한 각성 및 종교적 포교권을 주장했다. 이어 남산제일봉 살리기 1만명 서명부를 전달하고 진입로 5km를 행진하며 가야산 성역화를 주장했다.

남동우·하성미 기자



장윤 스님 특별기고

양심 세력은 모두 어디로 갔나

동국대는 미술과 신모 교수의 박사학위는 가짜이며 채용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당초 이 문제가 제기되자 이사장을 비롯한 학교의 고위직자들이 나서 신모 교수의 학위는 진짜이며 채용과정에서 검증을 거쳤다고 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지난 2월 15일 재단이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한지 다섯 달 만의 일이다.

그러나 동국대의 발표는 그동안 언론의 취재를 통해 드러난 사실 이상의 ‘진상’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밝힌 것이 없다. 신모 교수 채용과정에서 왜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오래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왜 덮여두려고만 했는지, 학교 고위층의 비호가 있었는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문을 해소할 정도의 만족할만한 설명이 없었다. 이는 아마 자체적 진상조사에 갖는 한계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어찌됐거나 동국대는 이로 인해 학교의 명예에 흠이 될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 특히 동국대가 불교종립의 대표적 교육기관인 점을 생각하면 불교계에 미친 악영향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몇몇 사람의 독단과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 이렇게 큰 문제를 야기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돌아보면 이번 사건은 처음 문제가 제기될 당시에도 나서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을 마련했다면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와 재단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해임까지 하면서 무조건 덮어두고 변명만 하려고 하다가 일을 키우고 말았다. 이제는 신모 교수가 교수라 되기 위해 가짜 학위를 제출한 것보다도 왜 그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느냐하는, 학교 당국의 도덕성에 대한 추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낙담으로 오물을 덮는다고 구린내까지 막을 수는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비슷한 입장에 놓인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회 태도는 동국대 책임자들과 비교된다. 이들은 신모 교수를 비엔날레 감독으로 선임했다가 동국대에서 각자 학위 문제가 불거지자 즉각 감독직을 취소했다. 또 신모 교수를 업무방해로 고발하는 한편 이사진 전원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신모씨가 동국대 교수라는 것을 믿었다가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언필칭 양심과 정의의 울림이 대학사회의 고위층 인사에 의해 일어 생기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또 한 가지의 의아스러운 것은 불교계 내부의 이른바 ‘양심세력’을 자처하던 일부 단체들의 태도다. 이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입에 거품을 물고 성명서를 낸다. 기자회견을 한다. 시위를 한다 하며 법석을 떨었다. 그러나 이번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일인지 도무지 꼼꼼히 물어보지 않고 있다. 이 일이 불교의 일이 아니라, 또는 정말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아니면 무슨 다른 속셈이 있어서 입을 다물고 있는지 그 속내를 알 수 없다. 만약 ‘양심(良心)’보다는 이해관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양심(兩心)’ 때문이라면 참다운 마음을 ‘양심(良心)’하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할 것이라는 비아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언이해하지고 이런 일은 오래 끌면 끝수룩 상처만 깊어지고 흔적만 크게 남는다. 이제부터라도 관련자들은 발로참회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입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해놓고 입을 막으려 하기보다는 대학의 지성과 종교의 양심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천하를 시끄럽게 한 허물을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東大, 신 교수 파면 결정 유보

차기 징계위원회 때까지 연락두질 땀 징계절차 진행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영배)는 7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사학위를 위조한 신정아 교수를 파면하기로 했으나 징계 당사자인 신 교수와 연락이 안 돼 차기 회의(8월 3일 오전 10시)로 결정을 유보했다.

동국대 법인 사무처장 정안 스님은 “교육부에 확인 결과 교원 징계시 당사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소집한 후 바로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차기 징계위원회까지 신 교수가 서면 등으로 연락하지 않을 경우 파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부지검은 신정아 교수의 박사학위 위조 사건을 행사1부(백잔하 부장검사)가 맡기로 했으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7월 24일 밝혔다.

서부지검측은 “신씨가 특별한 이유없이 입국 지연할 경우를 대비해 여러 가지 소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찰 수사는 동국대가 7월 23일 업무방해 및 공문서 위조에 대한 사기죄로 신씨를 서부지검에 고소하면서 비롯됐다.

또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광조)도 7월 23일 제70차 회의를 열고 동국대 신정아 교수 채용 의혹 규명 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는 법안(위원장) 광조, 여연 보인 윤달 성지 혜오 스님 등 7명으로 구성됐고, 조사범위는 신 교수 채용 의혹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9월 열리는 중앙종회 전까지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부속본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에 마가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은 선혜 스님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에 마가,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 선혜 스님이 7월 24일 임명됐다. 마가 스님은 1985년 사미계, 88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현재 중앙대 겸임교수와 현안 만일사 주지를 맡고 있다. 1987년 사미계, 95년 구족계를 수지한 선혜 스님은 표창사 총무, 동축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태안사 주지를 맡고 있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임시중앙종회 9월 4일

조계종 제174회 임시중앙종회가 9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열린다. 중앙종회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은 7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차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일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67 한국불교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현대불교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총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총부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공익법인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교육원 부설

국제불교대학원 남·여 <승려(행자) 모집>

<3개월 무료지도>

| | |
|----------|---|
| 기본과정 | 사물(목탁,요령,태징,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쇠승,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옥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대비식 등 |
| 범음,범법,작법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등 |
| 불교학 개론 | 소승과 대승불교, 근본불교, 화엄사상, 반야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선사상, 밀교사상, 유식사상, 선불교, 인교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

※ 불교학을 알아야 법문(설법)을 잘한다.

- ◆ 모집인원 : 30명
- ◆ 원서접수 : 2007년 9월 1일까지
- ◆ 개강일시 : 2007년 9월 3일 오전 9시
- ◆ 제출서류 :
 - 입학원서 - 1통
 - 주민등록등본 - 1통
 - 반명함판사진 - 3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특선사항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단 숙식 거주자만 접수함(한달숙박비 50만원)(지도강의료는 무료임)

◆ 문의 본대학 사무국 : 전 화 031)676-6207, 031)676-0908 팩스 031)675-0206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 영평사내 국제불교대학원연구원 건물)